

“다문화 통합하려면 오픈마인드 · 교육 필요”

글 편집부



문대양 하와이주 전 대법원장이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6월 23일 열린 아산재단 창립 39주년 기념 심포지엄의 축사를 하기 위해 특별한 걸음을 한 사람이 있다. 하와이 이민 3세로 1993년부터 2010년 8월 31일까지 미국 하와이주의 사법부를 이끌었던 문대양(75) 하와이주 전 대법원장이다.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을 경험하고, 사회의 편견을 바로잡는 일에 앞장섰던 그에게 이번 심포지엄의 의미는 각별했다. 문대양 전 대법원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 싣는다.

“정의 실현하기 위해 법관 선택”

언제 한국에 오셨나.

지난달에 왔다. 축사에서 밝혔듯이, 한국을 처음 찾은 건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듬해인 1971년이였다. 어머니와 함께 조상의 땅

을 처음 밟았을 때 6·25 전쟁의 폐허는 남았지만 재건이 진행되고 있었고, 한국인들의 독창성은 여전한 듯 보였다. 그 뒤로도 가끔 방문해 한국의 발전상을 눈으로 확인했다.

지난달에는 제주도에 갔는데, 제주도와 하와이가 많이 비슷하다. 성장이 매우 빠르다는 인상을 받았다. 하와이와 마찬가지로 제주도도 섬이고, 도시가 제대로 계획되지 않고 급하게 발전한다는 인상을 받았다.

이주한인 3세로서 차별을 겪은 일이 있는지.

나는 미국 아이오와에서 7년간 학창시절을 보냈다. 내가 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1958년은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여서 미국의 백인들이 아시아인을 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고, 부당한 대접으로 이어졌다.

아시아인은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일본인은 잭(jap), 중국인은 칭크(chink), 한국인은 쿡(kook)이라고 놀리듯 불렀는데 당시엔 그게 참 상처가 됐다. 부모님과 함께 찾은 레스토랑에서 출입을 거절당한 일, 택시기사가 아시아인은 태워주지 않겠다고 무시한 일 등을 겪으면서 편견과 차별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했다. 정의를 찾고 싶어 법관의 길을 택하게 되었다.

편견을 없애기 위해 했던 활동이 있다면.

미국 본토에서는 동양인이 로스쿨을 졸업해도 판사가 되지 못했지만, 하와이에서는 변호사 경험을 쌓은 후 판사가 되는 것이 가능했다.

나는 10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소수에 대한 차별에 맞섰는데, 하와이에서는 백인이 오히려 소수이기 때문에 그들을 변호할 일이 많았다.

부적절한 호칭으로 사람을 부르거나, 직장에서 공정하지 않게 대하는 경우 등에 대한 변호도 했으며, 검사 시절에는 모욕죄에 대한 기소를 통해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노력했다.

아산재단 심포지엄이 다문화에 다룬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매우 용기 있는 주제 선정이라고 생각한다. 다문화는 다루기 어려운 이슈이기 때문이다. 아산재단이 이 어려운 주제를 꺼내 큰 걸음을 시작한 것에 감명을 받았다.

미국은 오랫동안 다문화 사회를 유지해왔고, 시행착오도 많았다. 나는 이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아산재단 심포지엄을 통해 실마리를 얻은 기분이다. 다문화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교육이 핵심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인종의 문화와 음식, 언어 등에 대해 배워야 할 것이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교육과 제도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해 과학적인 논의가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미국이나 프랑스·독일 등 다른 나라의 선행 연구에 의존하지 않고 한국에 적합한 독자적인 다문화 연구를 해나가는 것이 흥미로웠다.

한국인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국에서 다문화사회 이슈는 매우 복잡한 문제다. 결혼과 자녀, 사회, 경제, 남·북한 등 다양한 요소와 복잡하게 얽여있다. 이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우는 오픈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좁게 보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음을 열고 크게 보아야 한다.

교수와 기자, 연구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항상 공부하는 자세로 이 문제를 다루고,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이해해야 할 것이다. 간단히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므로 인내심을 갖고 풀어나가야 한다.

차별 체험한 미국 이민 3세

문대양 전 대법원장의 할아버지(문정헌)는 1903년 1월 13일 새벽, 사탕수수농장 노동자로 하와이 호놀룰루항에 도착한 최초의 한인 이민자 102명 중 한 명이었다. 인천항을 떠나 호놀룰루에 도착한 미국 상선 게일릭호에는 56명의 남성과 21명의 여성, 25



아산재단 심포지엄에서 패널의 발표를 듣고 박수를 치는 문대양 전 대법원장 부부.

명의 어린이가 타고 있었다. 평양에서 태어난 그의 할아버지는 1910년 조국이 일본에 강제합병되자 귀국을 포기했다. 그의 외할아버지(이만기) 또한 1세대 이주민으로, 서울 출신이었다.

그의 조부들은 허리가 휘어질 정도로 고된 농장 노동과 편견, 차별에 맞서야 했다. 영어를 구사하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상황은 더 나빠졌지만 투철한 근면 정신으로 자식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애썼고,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스스로 개척했다. 그 결실로 하루에 69센트를 버는 농장 노동에서 시작하여 그의 할아버지는 양복점을, 외할아버지는 이발소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의 아버지(문덕만)는 양복점을 물려받아 의류점으로 단장했고, 어머니(메리 리문)와 함께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해 자식 4명을 대학과 대학원까지 진학시켰다.

1940년 하와이에서 태어난 문대양 전 대법원장은 고향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이오와 코칼리지에서 철학과 사회학을 전공한 뒤 인종차별을 비롯한 비합리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오와대학 로스쿨에 진학했다. 로스쿨 졸업 뒤 고향인 하와이로 돌아와 하와이 연방법원장 서기와 하와이 검찰청 검사, 로펌 변호사, 하와이 순회 항소법원 판사, 하와이 대법원 판사 등을 거쳐 1993년부터 17년 동안 하와이주 대법원장을 역임했다. 일본 오키나와 출신인 부인(스텔라)과의 사이에 아들 두 명이 있으며, 아들들 또한 일본과 하와이 출신 배우자와 결혼해 다문화가정을 꾸리고 있다. 📖